소통·연결·창조의
Communication · Connection · Creation
신강진

K-컬처의 원조
비색 고려청자의 고장
강진

2023년 겨울호 Vol. 33 www.gangjin.go.kr 2023년 12월 22일

강진만 큰 고니 '힘찬 날갯짓'

12월의 드넓은 강진만이다. 겨울진객, 천연기념물 201-2호 큰 고니들의 날갯짓이 한창이다. 이 곳은 1,131종의 남해안 최대 생물종 서식지로서 부족함이 없는 천혜의 월동지다. 큰 고니는 날개를 활짝 펴면 길이가 무려 2m에 달한다. 친환경 생태 관광지의 집약체로 계속해서 진화 중인 강진만 생태공원은 강진을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2024년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오로지 지역경제 최우선

가족단위 지출금액 50%
최대 20만원 혜택

1차 농수축산물 판매 증대
지역민 소득 덩달아 올라

강진군은 내년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삼고 신발끈을 조여 맸다. 올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재정적인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조금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및 내수 부진에 따른 고물가·고금리가 예상된다.

예상대로 라면 내년 약 300억원의 교부세 감소로 강진군의 심각한 재정적 타격과 함께 경기침체로 이어져 군민의 삶이 어려워지며,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이 줄어들까 역시 염려가 크다. 이러한 전망 속에 강진군은 새롭고도 기발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심사숙고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감히 생각지 못하는 과감한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2024년 반값 강진 가족 여행의 해'라는 초강수의 시책을 추진한다.

강진상품권으로 지급… 관내에서 모두 사용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2명 이상 가족 단위로 강진군을 여행하면서 관내 5만 원 이상 소비 때 지출한 금액의 50% 혜택을 최대 20만 원까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파격적인 시책이다. 내년 2월 열리는 청자축제 기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축제기간에 맞춰 추가로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관광객들에게 지급된 강진사랑상품권은 결국 고스란히 강진군으로 유입됨에 따라 경제활력의 동력이 될 것이며, 군민이 체감하는 경제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소상공인과 숙박업소, 대중교통 등 관내 상권의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지역경제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아무리 좋은 시책이더라도 군민 전체에 대한 개별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단편적으로 관내 음식점의 이용객 증가는 관내 농축수산업의 생산 증가로 이어짐은 당연한 귀결이다.

온 군민 동참 속 경제 활성화 이뤄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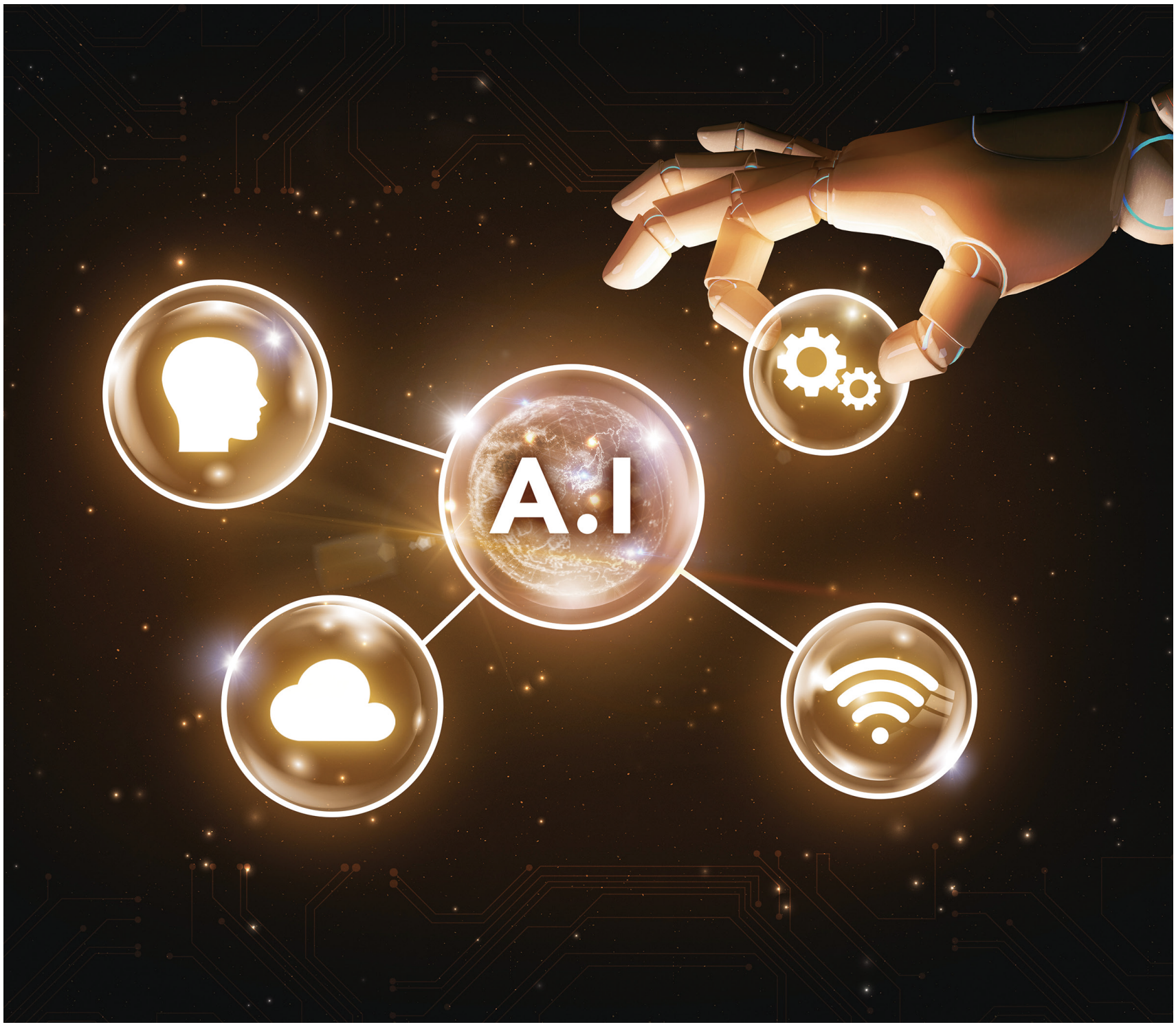
또한 관내 음식점의 이용객 증가는 해당 음식점의 고용인력 증가, 이에 따른 임금 증가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소비수요가 늘어나 지역 사회 전반에 대해 연쇄적인 상승효과가 펼쳐진다.

더불어 외지인의 강진에 대한 긍적적인 지역 이미지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증가로 이어져 활기있는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러한 파격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강진군민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이 그 어느 시군보다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반값 여행이 온 군민의 동참 속에 순조롭게 추진 될 것이다.

앞장선 단체장의 고뇌와 결단, 그리고 이를 따르는 공직자들과 강진군민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

반값여행의 종착지는 오로지 강진 지역경제의 활성화다.



“미래는 4차산업혁명 기술이 승부”

강진군 선두 주자로의 길 ‘당당히 가겠다’ 다짐

1차·3차산업 양 날개로 4차산업혁명이 뒷받침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 조직 신설, 엔진 장착

최근 몇 년 동안, 4차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및 민원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함께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각종 인공지능 플랫폼의 도입으로 공공기관들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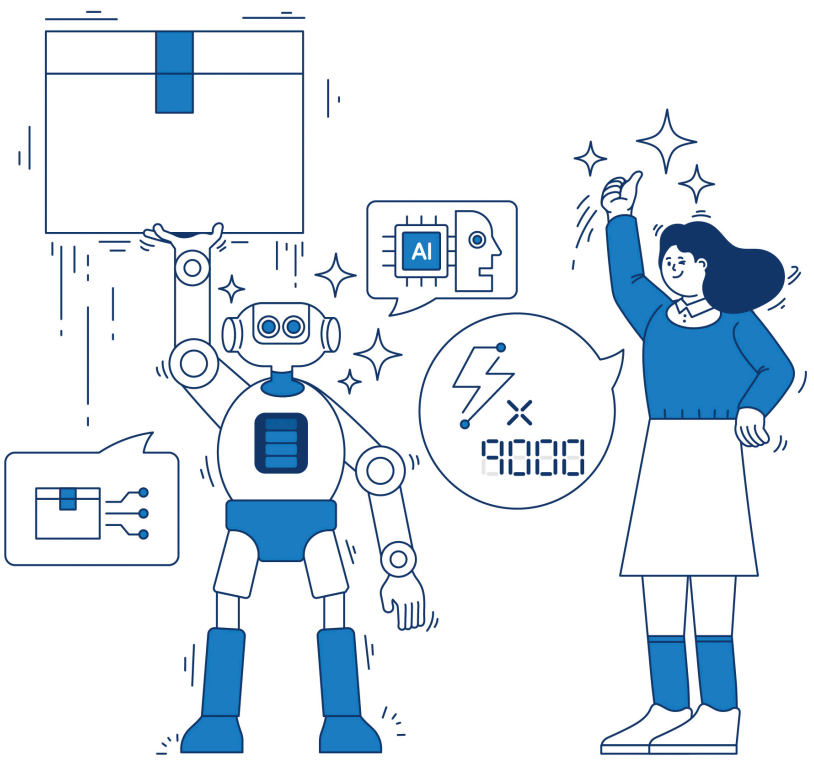
대표적인 예로 행정 서비스의 자동 응답 시스템에서부터 상담, 정보 제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챗봇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응대가 가능해졌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 전자공증 등으로 각종 민원 발급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줄이고 IoT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으로 실제 가정에 인입되는 수돗물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등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실생활 깊숙이 적용되고 있다.

시간 공간 제약 뛰어넘는 농수축산물 유통 혁신

최근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스마트, 프로세스 자동화 지능화, AI, IoT 등 전 분야에 걸쳐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제시하는 추세이다. 강진군 역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및 확산사업, 공유자전거 확충 지원사업 등 군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중이다.

군은 내년에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을 구성,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접근성이 쉽지 않은 강진군의 현 상황을 군정전반에 걸쳐 4차산업기술을 적용토록



기획하고 접목해 온·오프라인상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초거대 AI, 드론실증도시, 블록체인 기반 집중 확산 사업 등 4차산업 관련 각종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도전해 각종 행정에 접목함으로 내부 직원 및 민원인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4차 산업기술의 도입은 지자체들이 미래에 걸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지자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농수축산 1차산업과 서비스 3차산업을 양 날개로 하고 4차산업혁명을 활용, 이를 적극 뒷받침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강진이 생산해 낸 각종 유·무형의 자산들을 전 군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강진경제의 도약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일 잘하는 강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 확보

작년 최하위서 급상승··· 전남에서 최고 수준

전년 64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 재정 기여

강진군이 올 한해 정부와 전남도 주관 지자체 공개경쟁에서 잇따라 상위 성적과 최종 성과를 거둬 국·도비를 대거 확보, '역시 일 잘하는 강진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강진군은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4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종 평가 결과 A등급으로 확정돼 112억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다.

강진군은 지난 5월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도출하고, 이를 행안부에 제출한 결과 89개 시군 가운데 상위 20%로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처음 시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는 최하위에 머물러 아쉬움이 컸으나 이를 거울삼아 올해는 준비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세심하게 준비했고

이후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평가 결과가 급상승했다. 국비 지원액도 64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많아져 열악한 군 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각종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쾌거는 강진군이 피와 땀, 노력을 다해 이룬 결과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기획단계부터 군수·공무원 철저 준비

강진원 군수는 지난 9월 행안부에서 열린 평가회에 참석, 예산 규모와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강 군수는 강진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필요성을 논리 있게 전달했다. 설명 자료 역시 강진원 군수가 직접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사업구성과 내용, 실질적인 인구증가 방안, 실행안 등을 제안하고 꼼꼼하게 챙겼다.

강 군수는 행안부 관계자들을 수시로 찾아 강진군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남다르다는 점과 절박함을 호소해 성과를 냈다.

강진군의 이번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 사업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강진 푸소 시즌2(푸소 운영농가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확충, 사의재 푸소 한옥체험 단지 조성)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 ▲인접지자체 연계 및 도농교류 사업(강해영(강진+해남+영암) 지역상생 프로젝트, 강진-광주 동구 '함께 라이프 굿' 사업 등 총 3개 단위 사업에 7개의 세부 사업을 포함한다.

전남 최고 지자체는 강진,
330억 확보

공모 최다액 20개 시군 치열한 경쟁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선정
지역성장 전략사업 100억원 확보도

전남 최고 지자체는 강진군임을 여실히 부각시킨 2023년이었다. 지난 7월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천년 문화 강진, 청년 글로컬 플랫폼'이 최종 선정돼 도비 200억원 등 총 사업비 330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성화대학 4차산업혁명 핵심기지로

이번 프로젝트는 도 공모사업 규모상 가장 크다.
강진군은 출사표를 던진 전체 20개 시군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면과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확보된 총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해, 폐교된 성화대학을 리모델링해 4차산업혁명 핵심 거점 기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및 실감 콘텐츠 기업과 연계해 청년창업 지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지역의 명운이 달려있다'라고 강조한 강진원 강진군수의 진두지휘 아래, 오롯하게 공무원과 용역팀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군 값진 결실로 평가받았다.

군은 선정 가능성을 확실하게 높이기 위해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수소문한 전국의 전문가를 수시로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등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계획을 도출하고 심혈을 기울였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최초로 사업 구상을 시작한 이래, 폐교된 성화대를 활용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 건설을

계획하고, 순천대를 비롯해 많은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통해, 성화대 폐교로 생기를 잃은 성전면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과거 성전면이 강진읍보다 더 큰 활력을 가졌던 전성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이번 300프로젝트 쾌거에 앞서 지난 4월 전남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돼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에 힘을 보탰다.

청년이 지역 바꾸는 선순환 구조 전환

강진군은 300프로젝트로 인구 유출과 지역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역이 청년을 세우고, 청년이 지역을 바꾸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군은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 성공에 이어 앞으로도 대형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해 강진을 전남 서남부권 중심지로 도약시켜 나갈 각오다.

백종원과 손 잡고
지역상권 확 살린다

전남권 최초
획기적인 모델 선봬

강진읍시장 첫 단추
경제 활성화

강진군이 정부, 전남도 주관 대규모 공모를 잇따라 따낸데 이어 민간투자 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왔다.

강진군이 백종원 (주)더본코리아와 대표와 협약을 맺은 것이 가장 크다. 전남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백종원 대표와 상생발전 협약식을 가졌다. 지역상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전국의 모든 지역이 고민하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과 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손을 잡았다.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는 충남 예산군과 예산시장을 중심축으로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예산시장은 올해 7월까지 누적방문객 137만명을 돌파하며 사라질뻔한 작은 시장을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장으로 변화시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강진군은 이에 주목했다.

군은 지난 3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예산시장 벤치마킹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국 50여개의

지자체가 백종원과 함께 하기 위해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는 가운데 강진원 군수가 직접 참여해 백종원 대표에게 건의했고, 지속적인 제안으로 백종원과 함께 '강진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강진 분원을 유치해 창업 등에 필요한 컨설팅, 시설 지원 등 모든 분야를 뒤에서 밀어주는 행정지원으로 지역회복의 구심점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복합문화공간 오감통이 시작점

군은 강진읍시장과 오감통 먹거리타운부터 시작해 시장 주변 상가로 확대하고 이후 강진읍 상권 전체를 활성화하는 3단계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경제성 높은 문화콘텐츠에 집중한 강진읍내 오감통은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 쉴거리가 있는 오감만족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데 최적이다.

군은 강진읍시장 주변의 오감통 공연장, 음악창작소를 연결해 음악, 문화예술, 레트로 감성이 함께하는 핫플레이스를 만든다. 강진에서 나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개발해 '맛과 관광'이라는 방향성을 뚜렷이 한다.

강진군은 전국적으로 성공한 강진만의 특별한 관광마케팅으로 미항 마량에서 열리는 마량놀토수산시장, 병영면 병영시장의 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 불금불파, 스트레스를 풀고 가라는 의미가 담긴 농가 민박 푸소 등의 체험 프로젝트들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지역문화 콘텐츠들로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다.

관광과 음식 합쳐 '관광미식도시'로

더불어 맛의 고향 1번지 강진은 전남 서남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강진맛집 투어를 코스에 담을 만큼 그 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하멜촌 맥주와 하멜촌커피를 개발해 독자적인 지역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군은 백종원 대표와 함께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은 전국의 미식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이게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강진 분원을 유치하고 단계별로 강진읍시장, 오감통 먹거리타운, 주변상가 활성화 전략을 완벽하게 추진해 강진을 전국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이를 통해 음식을 연계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강진군, 최고 권위 2023 한국관광의 별 선정

강진 축제와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가속도

전남권 기초 지자체 최초 문화관광재단 설립

강진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돼 축제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국 관광객들의 강진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해 관광객 유치 및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관광의 별'은 2010년부터 매년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개인·단체 대상 시상하는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강진군은 '올해의 관광기관 및 사업체' 부문에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부 공인 따라 전국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

지난 2015년 전남권 기초 지자체 최초로 관광 마케팅 기구로 설립된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 지역 관광 브랜딩에 앞장섰다.

특히 이번 시상에서는 주민주도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조만간(조선을 만난 시간) 프로젝트',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등이 인정받아 본상에 선정됐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인 강진원 강진군수는 "한국관광의 별은 우리나라 관광 분야의 가장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으로 이번 수상을 통해 지역의 많은 홍보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면서 "2023년 전남에서 유일하게 강진군이 수상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 악화 이후 가장 중점을 뒀던 관광 활성화가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연계 '관광도시로'

강 군수는 이어 "축제와 관광을 통해 1차 농수축산업 판매 증대, 3차 서비스업 이용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강진 유치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강진군은 내년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 관련 정책과 대대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면서 지역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각오다.

전국 지자체, 강진을 배운다

인구·청년정책 등 공무원 견학 줄이어
육아수당·도시민 유입정책 모범사례

'지방소멸 위기대응의 모범, 강진군을 배우자'.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푸소 활성화를 통한 농촌체류형 정책, 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 지원 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정책 등이 빛을 발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강진군을 찾고 있다.

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관심 고조

특히 84개월 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이 실제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된 것을 비롯해 1박2일, 2박3일 농촌에서 머무르며 강진살이를 체험하는 푸소(FU-SO)가 더욱 활성화돼 강진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더불어 강진군의 도시민 유입 정책으로 빈집 리모델링과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 지원에 적극 나섬으로써 귀농·귀촌 문의가 쇄도하는 등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들어 광역지자체는 물론 전국 기초지자체, 의회 등의 방문이 잇따르고 동시에 강진을 모범사례로 삼아 해당 지자체의 분발을 촉구하는 등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전라남도인재개발원 교육 참여자 등이 강진군의 인구감소 대응 프로그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관심을 갖고 강진을 벤치마킹했다.

K-컬처의 원조

한반도 역사 가장 찬란했던 고려청자

K-POP을 필두로 영화, 드라마, 웹툰, 패션, 음식, 심지어 트로트까지 한국의 다양한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그 기세와 위력이 대단하다.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코리아의 위상이 높은 적이 없었다. 그야말로 한국과 한국인, 한국문화가 나날이 떨쳐 일어나고 있다. 흔히 말하는 '국뽕'이 넘쳐나는 시대다. 아무리 겸손을 앞에 뒀더라도 K-열풍은 남녀노소 불문, 지구촌 대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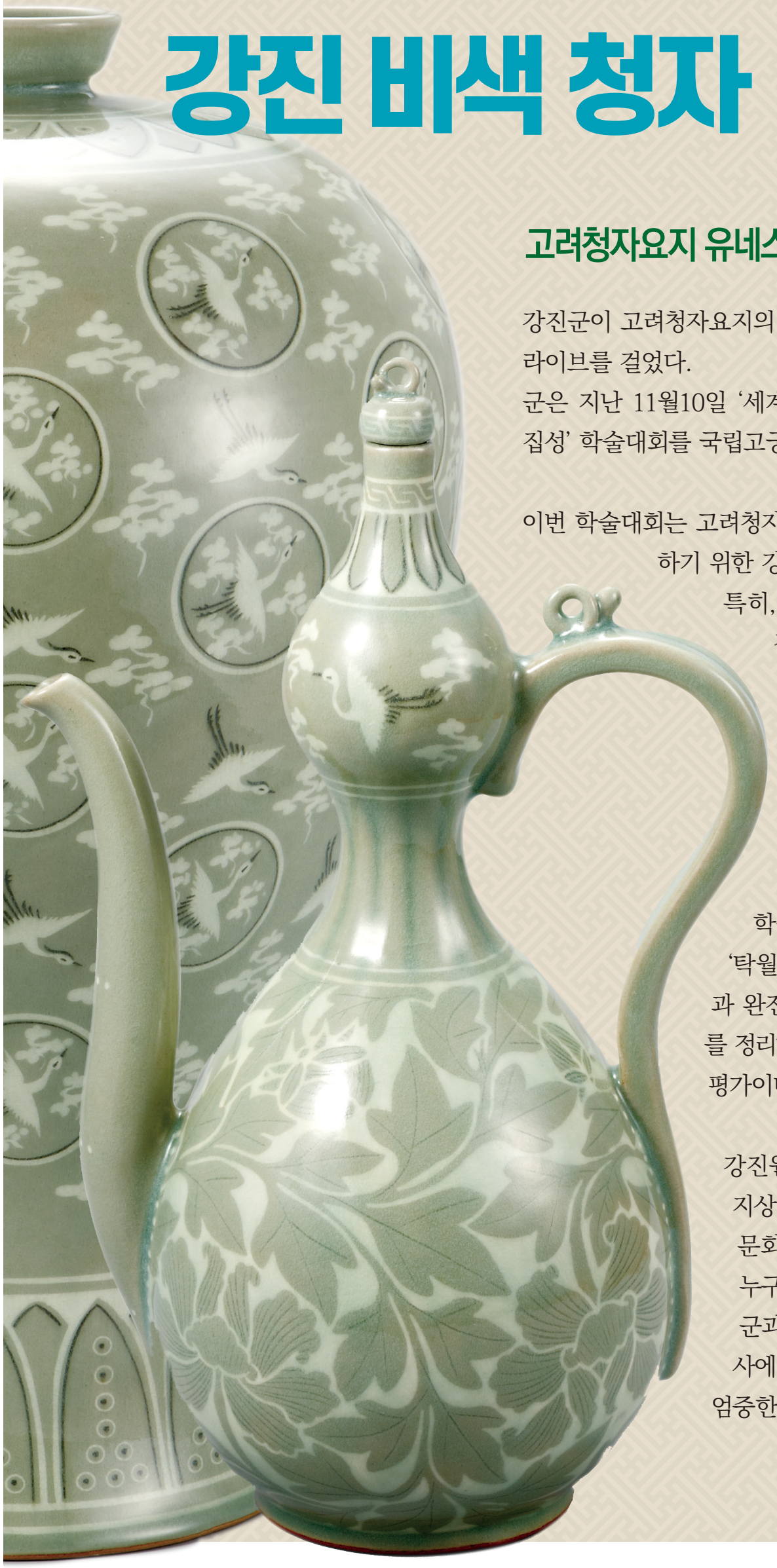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한국문화의 힘을 세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내보인 것은 뭘까라는 물음에 도달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찍이 여러 문헌과 저명한 이들로부터 공식화된 것이 바로 강진에서 생산된 비색청자다. 가까이는 프랑스의 유력지 로몽드의 기자가 한국의 3대 보물, 또는 가치로 푸르른 한국의 가을 하늘, 다산 정약용과 그 가르침, 그리고 고려청자를 지목했다.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긍은 귀국해서 휘종에게 올린 보고서 '선화봉사고려도경'에 도기항아리(陶尊) 조(條)에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했다. '도기의 색이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이라고 한다. 근년에 들어 제작이 공교해지고 광택이 더욱 아름다워졌다'라고 썼다.

청자는 고려와 송이 같은 시대 생산했지만 그 최고 정점인 비색청자는 강진만이 유일하게 만들어 내 이름을 높였다. 지금은 고려청자박물관 등 관련기관과 민간요들이 빛깔을 복원하고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강진군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나 행사, 특별한 날, 그리고 대구면에 있는 청자판매장에서 선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공식 선물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국제대회를 치를 때 어김없이 트로피나 기념품으로 등장하는 고려청자. 강진이 K-컬처의 원조 비색청자의 본고장임이 분명하다.

강진 비색 청자 '세계로'



고려청자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드라이브

강진군이 고려청자요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군은 지난 11월10일 '세계유산과 한국의 고려청자 연구자료 집성' 학술대회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려청자 요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강진군의 장기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군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문화재청 직권으로 등록된 '강진도요지'의 등재를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청자 도시의 자부심과 위상을 걸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해왔다.

학술대회는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는 평가이다.

강진원 군수는 "고려인의 기술과 문화가 지상과 바닷길로 전파돼 각 나라의 도자문화 형성에 큰 파급력을 미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작게는 강진군과 대한민국의 일이고 크게 보면 인류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엄중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군, 인구 유입에 박차 가한다

대구면 남호마을 신규마을서 첫삽

주택단지 16세대 100% 분양 완료

강진군이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해 지역 활성화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5일 대구면 구수리 남호마을 인근에 16가구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필두로 본격적인 인구 유입에 나섰다.

이날 기공식에는 강진원 군수와 부동산 개발업체 ㈜전노봉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주민, 입주 예정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의 기쁨과 기대감을 나누고 안전한 시공을 기원했다.

대구면 남호지구는 산231번지 일원 1만5,541㎡(4,709평) 부지에 주택단지 16세대, 마을회관 1세대의 신규마을을 조성한다. ㈜전노봉에서 2025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자한다.

2025년까지 100억원 투자

강진군은 마을안길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 마을 기반시설 구축과 다양한 행정지원을 더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도시민 인구 유입에 힘을 보탠다. 해당 부지는 주변 경관이 좋고 바다가 보이는 낮은 구릉지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훌륭한 입지조건으로 주택단지 16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됐다. 그 중 14세대는 인근 광주 등 도시민이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나머지 2세대는 청년 가구가 분양받아 입주한다.

남호지구의 100% 분양에는 강진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강진군에 전입해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은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주택 신축이 부담됐던 도시민에게 그야말로 '파격 지원'이 됐다. 자녀 1명당 월 60만 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또한 청년 가구가 강진군을 선택한 큰 이유로 작용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을 위해 대구면 남호지구가 드디어 첫 삽을 떴다"며 "남호지구를 시작으로 신규마을 및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위 그림은 강진읍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 조감도.

전입 이주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강진군은 전입하는 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묵은지 사업 지원, 푸소 운영 때 리모델링비 또는 운영동 구축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강진군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규 전입자와 귀농·귀촌인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주거, 일자리 등 인구 유입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11월 20일부터 4일까지 도시민 인구유입을 위한 '만원 리모델링 빈집 1호점' 입주 신청을 마무리하는 등 인구유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치는 더 깊게…
내년 푸소 체험객 1만명

31개 학교 5,500명 이미 예약
일반 관광객 프로그램 더 확대

2023년은 코로나의 여파로 주춤했던 수학여행이 본격적인 괘도에 오르면서, 푸소체험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해였다. 총 34개 학교 4,330명이 다녀갔으며, 일반·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한 푸소 프로그램까지 합하면, 올해 총 7,300명이 다녀가 8억 9,8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귀농귀촌박람회, 수도권 학교 등 행사 현장이나 기관을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블로그와 카카오톡 채널을 열고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에는 푸소를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첫 단계로 '강진군 푸소체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202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더욱 다양한 푸소 프로그램을 구성해 체험객을 모집한다.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

들에게 농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리더 양성 캠프도 선보인다.

푸소는 내년도 체험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이미 31개 학교 5,500명이 내년도 체험학습 예약을 마치며, 올해 성과를 훌쩍 뛰어넘었다. 수학여행 성수기철인 5월~6월, 9월~10월에는 더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정이 빽빽하다. 수학여행 비수기철인 3~4월과 11월에는 신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해 '푸소 비수기'가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햇수로 10년차 변화된 모습 준비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축제와 연계한 이벤트 행사, 여름 휴가철·행락철 관광상품, 연령별 프로그램 등 매력적인 여행상품을 연계 구성해 푸소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2015년 시작된 푸소는 곧 햇수로 10년차를 맞이한다. 푸소의 주 고객층인 학생들의 성향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졌으며, 즐거움과 신선함,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 푸소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4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며 확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운영방식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앞으로 10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푸소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여러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다녀갔지만, 수백명의 학생들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농촌을 깊숙하게 만나는 프로그램은 푸소가 유일하다.

새로움을 더해 프로그램의 변화를 가져오되, '넉넉한 정', '타인과의 소통', '땀방울의 가치'라는 푸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2024년의 푸소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기고

“관광객에게 생생한 병영이야기로 강진의 매력 선물”

병영주민해설사
서 금 덕

나는 올해로 일흔일곱이다.
병영면에서 태어난 토박이다. 고등학교는 광주에서 다녔고 결혼 후에 병영으로 와 지금까지 이 곳을 떠나본 적이 없다. 주민으로서 누구보다 마을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성격 덕에 병영마을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 못 했다. 하지만 주민해설사를 맡게 되고, 내가 사는 마을을 관광객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다.

마을여행 관광객들에게 전라병영성 남문 누각인 진남루에서 꼭 사진을 남기라고 권유한다. 복원 중이긴 하지만 그 어떤 궁궐보다 장엄하다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전라병영성으로 병영면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영상인이 생겨난 것도 하멜이 머문 것도, 한골목 옛담장이 쌓아지고 장대거리가 만들어진 것도, 모두 전라병영성이 마을을 이어준 덕분이라 나는 생각한다.

나의 소원은 마을여행을 온 사람들이 다시 병영을 찾는 것이다.
지금의 내 나이가 되면 의미있게 사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마을여행을 할 때마다 참 보람있다고 생각한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병영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게 되고, 또 이곳을 찾아준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강진 병영에 오는 이들이 행복과 감동에 잠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기고

“병영에 있는 빈집 고쳐서 살고 싶은 게 나의 목표”

36만 유튜버
김 현 우

나는 강진군 병영면 4도3촌 병영스테이 입주자다. 청년이다. 유튜브 ‘오지는 오진다’를 운영한다. 영상제작회사 ‘바바프로덕션’의 대표다. 최근에는 유튜브 실버버튼을 받았다. 기쁘다.

빈집이라는 콘텐츠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사실 처음에는 이 것 저 것 소소하게 많은 시도를 했다. 우연히 시골길을 테마로 잡고, 시골집을 소개했었는데 빈집을 소개할 때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선택했다. 그때만 해도 단순히 비즈니스 측면에서 결정했다.

강진은 나주에 본사가 있어서 촬영차 자주 들렀던 곳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이 강진군 병영면에 근사하게 고쳐진 집이 있다고 소개시켜줬고, 그렇게 인연을 맺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을 포함해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이다. 흔한 귀농·귀촌 상담센터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관이 필요한데, 병영면은 그런 역할을 강진군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주고 있어서, 모든 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4도 3촌에 참여한 지 석 달이 지났다. 남은 석 달도 지금처럼 시골살이와 강진군 영상을 찍고, 다른 지역으로 가 빈집이 멋지게 변한 모습도 찍을 것이다. 그게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지금 병영스테이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지금처럼만 지냈으면 한다.

강진 병영의 빈집을 구해 직접 고쳐 사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이자 방향이다.

바다낚시 어선, 마량 경제 크게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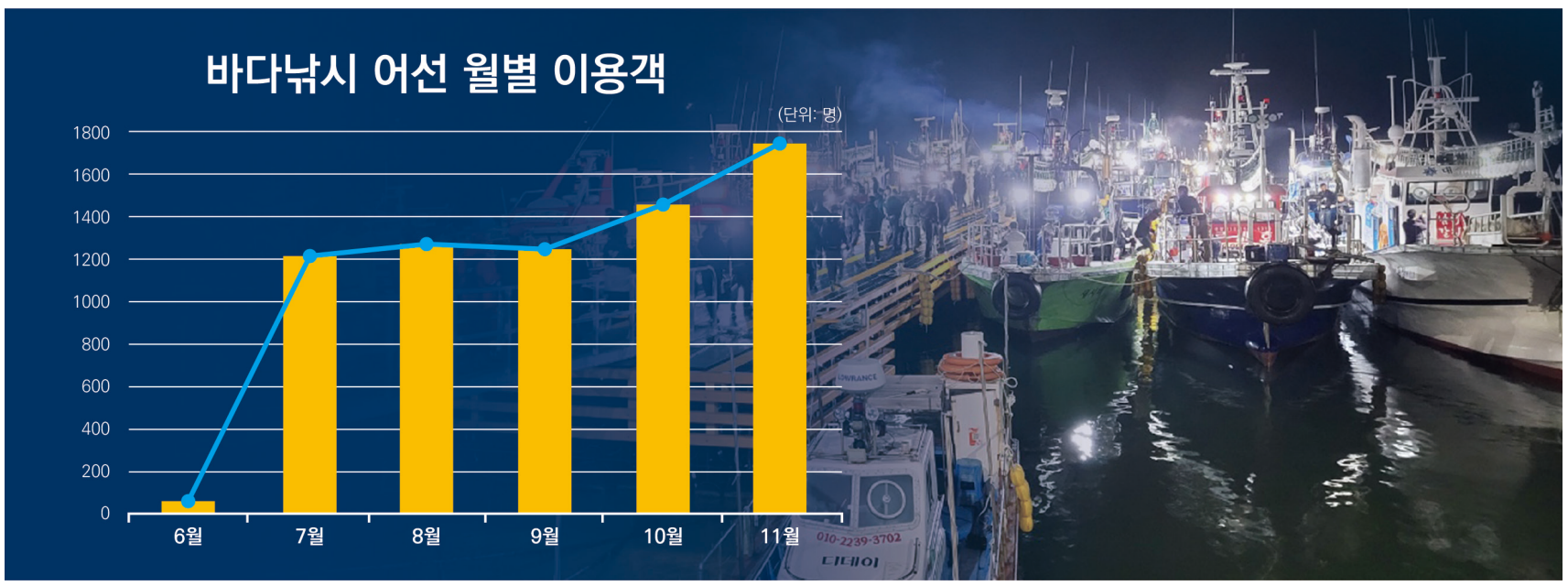
6월 유치 이후 7천명 찾아… 경제효과 14억

내년 20척 이상 추가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강진군이 민선8기 6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마량항을 전국 최고의 바다낚시 메카로 발돋움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지 1년여가 지난 지금 마량항이 바다낚시 어선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11월말 기준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 누적이용객이 7,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군에서 파악한 경제유발 효과만도 누적액 약 13억 9,000만원이다.

군은 이런 분위기를 등에 업고 내년에도 관광버스를 통한 낚시객 인센티브 지급, 전국 바다낚시 대회 개최, 낚시 체험 관광상품 개발 등 바다낚시 어선 활성화 정책을 폭넓게 시행해 마량항이 바다낚시 어선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을 전망이다.

군은 내년에 바다낚시 어선 20~30척을 추가 유치할 계획이다. 군은 마량항을 해양관광 1번지로 변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바람 나는 마량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사시사철 축제로 늘 활기찬 강진

청자·하맥축제·갈대축제 핵심 콘텐츠

축제마케팅추진단 신설로 동력 확보

강진은 사시사철 축제로 뜨거운 곳이다. 축제를 마중물로 삼고 관광 붐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결국 1차산업 농수축산물 판매를 증대시키고 강진군 산업구조 47%에 이르는 3차산업 서비스를 확대해 최종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
강진은 겨울을 마무리 짓고 새 봄을 맞이하는 2월말 청자축제를 연다.

내년이 벌써 52회째다. 강진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겨울 끝자락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주로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히 내년을 반값 강진 방문의 해로 선언하고 2명 이상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는 최대 할인혜택이 20만원까지 주어질 예정이다.

특히 내년 4월에는 강진 군동 남미륵사 일원에서 군동 풍동 봄꽃축제를 처음으로 펼쳐 강진 500만 관광객 유입을 위한 파노라마를 선보인다. 이어 영랑 김윤식 선생의 삶과 시 정신을 기리는 영랑문학제가 4월에 열리며 같은 달 봄 향기 가득한 봄날, 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을 마련한다.

6월에는 보은산 수국길축제를 열어 군민들과 꽃 나들이객들을 맞이한다. 여기에 한여름 하맥축제가 전국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해 보인다.

가을에는 아홉 번째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전국 나들이객들을 불러모아 강진만의 너른 품과 갈대숲, 천혜의 생태계를 선사한다.
더불어 역사와 관광자원을 결합한 병영면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불금불파가 봄과 가을 진행돼 병영면민들을 웃음짓게 한다.
더불어 마량놀토수산시장 역시 무더운 여름과 한겨울을 피해 매주 토요일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강진군은 이를 더욱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축제마케팅추진단 신설이다. 강진군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축제행사1팀, 축제행사2팀, 지역경제연결팀, 식품위생팀으로 구분 짓고 축제를 운영한다.

축제와 관광을 통해 강진 경제는 더욱 알차지고 지역민의 주머니는 더욱 두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고

“축제에 관광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가자”

강진군축제추진위원장
이 호 남

축제를 치르다 보니 확신이 생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축제와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는 같은 말이자 공동운명체라는 것이다.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축제 시작과 동시에 관광이 이뤄지고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로 마무리, 완성된다고 보면 된다.

축제를 통해 관광 붐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이 강진을 찾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강진의 맛과 멋을 충분히 안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공감대를 군민 사이 사이에 자리잡게 하고 우리의 삶에 깃들게 하면 ‘강진하면 멋진 곳, 영양 많고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을 맘껏 살 수 있는 곳,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곳, 친절과 배려가 있어 또 다시 가고 싶은 곳’으로 평가할 것이다.

조금 더 분발하면 우리의 미래를 더 환하게 밝힐 수 있다. 서로간의 자그마한 차이는 이해하면 어떨까.
축제에 대한 관심을 갖자. 주인의식을 갖추자. 그렇게 관광객을 맞이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한 만큼 그 결실도 다가올 것으로 믿는다.
군민들 스스로 변화된 의식 아래 한 단계 더 성숙한 강진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국·도비 확보로 군민 숙원 해결 '척척'

선정기관	사 업 명	국도비 확보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5억7,000만원**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4억8,800만원**
국 무 조 정 실	2023년 지역특화 청년사업	3,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2억3,100만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8억원
	2023년 농촌유학 지원사업(옴냇골 산촌유학센터)	3,780만원
	2023년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제	5,200만원
	2023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5억300만원**
	2023년 배수개선사업	**77억5,000만원**
	2024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11억6,840만원**
	2024년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5억원
	가루쌀 생산단지 사업	5억8,200만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사업	3억5,500만원
문 화 재 청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1억3,000만원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고택·종갓집)	6,380만원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향교서원·전통산사·생생·야행)	1억1,800만원
	2024년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6,500만원
	2024년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2,6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사업	6억5,000만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157억4,950만원**
보 건 복 지 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2,770만원
	2024년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4,590만원
	2023년 제2차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운영기관 공모	7,7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사업	2,550만원
	2024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억원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6억6,000만원
한국에너지공단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억2,100만원
	2024년 전선로 지중화사업	3억1,600만원
해 양 수 산 부	**숙마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9억4,370만원**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2억원
	2023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	**19억8,000만원**

(단위: 만 원)

선정기관	사 업 명	국도비 확보액
행 정 안 전 부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2,600만원
	2023년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공모사업	6,500만원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
환 경 부	**생활자원 회수시설 설치**	**15억원**
전 라 남 도	전라남도 지역특화콘텐츠 공모사업	5억3,000만원
	2023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2,900만원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1억8,000만원
	2023년 전남형지역성장전략사업(II단계)	**50억원**
	2023년 공유자전거 확충 지원사업	9,000만원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200억원**
	2023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4,000만원
	2023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7,200만원
	2023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3,000만원
	2023년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2억7,000만원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6억원
	하늘자전거길 조성사업	**15억원**
	용상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4억5,000만원
	어관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억100만원
	석교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억4,500만원
	토마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6억원
	신풍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억5,000만원
	성전월남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5억원**
	홈골제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15억원**
	강진읍 영랑로3길 주차장 조성사업	6억원
	강진읍 영랑로2길 주차장 조성사업	4억원
	까막섬 상록수림 수상교 및 둘레길 설치사업	**24억5,0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20억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2억2,500만원
	전략작물(콩) 전문생산단지 지원사업	5,500만원

‘강진에 살어리랏다’ 청년농 성공신화

오기종씨 작천서 연간 100톤 생산
강 군수 현장 찾아 “원예 지원강화”

강진으로 귀향해 쌈채소를 재배하는 청년농이 성공신화를 쓰고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지난 2022년 경기도 이천에서 6년간 쌈채소를 재배하다가 고향 강진으로 돌아와 현재 작천면 삼당리 일대에서 비닐하우스 25동을 경영하며 연간 100톤의 쌈채소를 생산하고 있는 오기종 농가.
쌈채소 재배시설이 25동에 이르기까지 오기종 농가가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은 비닐하우스 4동이 전부이다.

오기종씨가 어려움을 딛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노력한 결과 지금은 강진군 쌈채소 생산의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 지역의 많은 청년농들에게 선진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오기종 농가를 찾은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4차산업 혁명 기술 적용 방안 모색 및 지속적인 예산 증액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특히 오기종 농가와 같이 귀농·귀촌인, 가업 2세, 청년농이 선호하는 시설원예분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강진군은 올해 농림축수산업 부문의 예산을 작년 대비 188억 원 이상 대폭 증액해 이목을 끌었다. 그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군비 7억6,000만원을 편성해 자동화 비닐온실, 다겹보온커튼, 양액재배시설 등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역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다.

내년 강진군의 원예분야는 더욱 기대할 만 하다는 게 강진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진군의회 군민 신뢰받는 투명행정 구현 앞장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32년 의회 개원 최초로 지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와 2024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는 등 군민의 신뢰받기 위한 투명한 의회 구현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하는 군의회 비전 실현을 위한 올 한해 회기 및 의사운영과 입법연구를 통한 의안 검토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활동 등 주요 업무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하며 군의원과 전반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공유하며 투명한 의회 행정을 실천했다.

제9대 강진군의회는 2022년부터 투명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22년 하반기에 반부패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2023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밖에 강진군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모든 회의 전체영상을 공개해 누구나 의결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의회, 전문인력 확충 의정 역량 강화

정책지원관 등 군민 생활밀착형 조례연구 돌입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군민 맞춤형 정책 제안과 군민청원 신속 보고 등을 위해 의회사무과장 임용을 비롯해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2023년 군민 대만족 의정활동 구현에 나섰다.

의회사무과는 의회 사무를 전담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군 행정 전반의 감사와 시정 요구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조례 제·개정의 최전선 부서다.

핀 포인트 조례 제·개정으로 군민 편의 모색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군민 정책 제안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은 대규모 인사 개편을 실시했다. 우선 기존 의사팀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면서 정책지원관 2명을 신규 채용했다. 전문인력이 확충되며 각 상임위원회 담당자가 양질의 군민 맞춤형 조례로 군민 생활 편익 증대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군민청원 신속처리와 의정홍보를 특임받은 의정홍보팀은 군민청원 신속 처리를 위해 군민청원 전담 직원을 선임했다. 군민 불편 사항이나 정책 개선 사항 등을 신속히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회신 등 발빠른 군민 보고로 의정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통·연결·창조의 신 강진
COMMUNICATION CONNECTION CREATION

강진을 사랑한다면

강진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기

기부자 조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이 아닌,
강진으로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

기부방법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수
오프라인 : **전국농협은행** 방문 접수

기부혜택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6.5%)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이내)

기부금액별 혜택

(단위 : 원)

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30%)	총 혜택
100,000	100,000	30,000	130,0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대표 답례품

묵은지

청자

파프리카

토하젓

한우

상품권

※ 강진군청 총무과 (☎ 061-430-3462,4)

강진군 GANGJINCITY